

##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공기업 만들겠다”

—공단 출범 실질적인 원년의 해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지난 2일 오전 9시30분에 공단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2018년은 공단 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의 해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자고 다짐했다.

정학근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문화의 먼저 실천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과 소통, 배려의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한다」는 상호간의 약속이 우리 직장에 뿌리 내리는 조직을 만들자”고 말했다.



또한, 공단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 생활의 편익이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자세 확립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는 ‘도시관리공단이라는 하나의 가족임을 강조’ 하면서 노사가 하나 되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믿음으로 힘을 합쳐 최고의 공기업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시무식 후 정학근 이사장은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신년 인사를 나누면서 2018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획득

—직원들 삶의 가치향상을 통한,  
시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 세 분야를 심사해 70점 이상 획득 시 부여한다.

이번 선정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유연근무제 도입, 연차활용 및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직원들의 정시퇴근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시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



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학근 이사장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해 직원들의 삶의 가치 향상은 물론, 시민을 위한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인증기관 선정으로 2017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3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탁월'

-시민불편사항 개선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여수시의 2017년 청소대행업체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탁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지역주민,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 20명을 구성해 청소구간 등을 직접 방문 평가하고, 주민 980명을 대상으로 바른수거, 생활환경보전, 대시민자세, 종합만족도 제고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도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준수 및 종량제봉투 사용,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환경사업소, 2017년 정유년을 되돌아 보며...

2017년 정유년(丁酉年) 빨간 닭의 새해를 맞이하며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새해 다짐을 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2018년을 맞이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1년 동안의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사업소를 되돌아 본다.

3년 연속 관광객 1,300만명을 맞이한 미항 여수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유지하고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전·후반기 유지보수기간을 제외한 약320일 동안 2만7천톤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수 7천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였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친환경 에너지인 스팀을 인근 산업현장에 약4만2천톤 판매하여 약8억5천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견학 및 벤치마킹을 하여 기술력과 우수성을 알렸고 여수시 소재 읍·면·동 20곳의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 약 60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장을 운영하여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고 분리배출 의식 강화를 도모했다.

환경사업소장은 "2018년에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견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경 보전과 자원재활용의 소중함을 일깨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존 운동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 개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지난 12월 29일 신월동 환경사원복지관에서 정학근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의 희망찬 새출발의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종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종무식은 평소 말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 대한 모범사원 표창과 함께 이사장이 혼자 송년사를 하고 끝나는 틀에 박힌 종무식이 아니라, 김은석 사원이 직원을 대표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을 하는 이색 종무식으로 진행됐다.

딱딱한 조직문화에서 파격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정학근 이사장이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종무식에서 정학근 이사장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2017년은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안정적인 조직이 된 만큼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운영,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자"고 당부했다.